

**대한불교 조계종 대원정사 대작불사**  
 가장 대불 불사 1000일기도 동참 1인1일 1,000원  
 인연있는 불자들의 화주 시주 공덕 바랍니다.  
**(031)855-5501, 5503**  
 매주 토요일 철야 정진기도 (오후 11시-오전 4시)

# 현대불교

**인도 돕기**  
 부처님나라에 다시 불교가 깎고 있습니다.  
 인도불교유구추진위원회 (02)745-7799  
 조흥은행 741-04-365950(예금주: 인도돕기)

## 스리랑카에 '조계종 마을'

### 수재지역 주택·학교·의료센터 건립 지원

스리랑카에 '조계종 마을'이 세워지고, 이를 계기로 조계종과 스리랑카의 불교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된다. 조계종은 지난 5월 수재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스리랑카의 한 마을을 선정, 마을 복원에 필요한 주택 및 학교, 의료센터 시설 건립 비용을 제공하고 이 마을의 명칭을 '조계종 마을 (Korea Jogye Buddhist Village)'로 명명키로 했다고 8월 20일 밝혔다. 조계종과 현대불교 등 교계 언론사는 지난 7월 한 달간 '스리랑카 수재민 돕기 성금모금 캠페인'을 벌여 총 2억3천5백만원의 성금을 모금했으며, 모금액 전액은 '조계종 마을' 건립에 사용된다. '조계종 마을' 건립 대상지 선정을

### 법장 스님 등 대표단 9월초 현지 방문 수해성금 전달·양국간 교류 확대 논의

위해 조계종은 현재 스리랑카 정부 및 대사관과 협의 중이며, 복원 예상 규모는 100채 가량의 주택과 학교, 의료 시설 등 공공기반시설이다. 스리랑카에서는 집 한 채를 짓는데 우리 돈으로 약 1백50만원 가량이 소요된다. 조계종은 이번 수해 마을 복구 지원을 위해 총무원장 법장스님을 중심으로 한 대표단을 구성해 9월2일 부터 6일까지 스리랑카를 방문한다. 대표단은 법장스님 외에 도영포

교원장) 월서(호계원장) 진각(마곡사 주지) 법정(수덕사 주지) 지성(동화사 주지) 종상(불국사 주지) 원정(쌍계사 주지) 명섭(화엄사 주지) 풍산(대흥사 주지) 채공(봉선사 주지) 직무(대행) 미산(조계종 사회부장) 스님 등 총단 주요 소임자 및 교구 본사 주지와 동국대 참사랑운동자 원봉사단 등 2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방문에서 법장스님은 스리랑카 대통령에게 직접 성금을 전달

하고 수상 등 정부 인사들과 만나 양국 불교 교류 확대에 대한 조계종의 입장을 전달한다. 또 스리랑카 주요종단 지도자와 만나 불교 교류에 대해 논의한다. 방문단은 이어 수해 피해지역을 둘러본 뒤 '조계종 마을'로 복원되는 마을과 지체결연을 맺고 조계종과의 교류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불교국가인 스리랑카는 국민의 70% 이상이 불교신자이며, 동남아 불교의 성지로 꼽힐 정도로 찬란한 불교문화를 자랑한다. 지난 5월에는 56년만의 최악의 홍수로 700명 이상이 사망 또는 실종되고 6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반갑습니다"**  
 2003 대구 하계 U-대회(가) 21일 '하나가 되는 꿈'을 주제로 11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172개국 7천1백여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는 북한도 대규모의 선수단을 보내왔다. 사진은 20일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한 북한 선수단이 대구 동변동에 위치한 유네비사이드 선수촌에 입촌하면서 불교관 자원봉사자들의 환영을 받고 있는 모습. **관련기사 14면** 대구=박원구 기자

## 국제 간화선센터 건립 추진 아시아 교수불자련 추진

### 조계종, 삼보사찰 중 한곳에 5천평 규모

한국,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태국, 인도 등 5개국 교수 불자 30명은 8월21일 강원도 인제 백담사에서 열린 제1회 동아시아 교수불자대회(관련기사 8면)에서 '아시아교수불자연합회'를 창립키로 결의했다. 이들은 이날 '창립추진위' 발기인 모임을 갖고 '창립 결의문'을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창립 준비에 들어갔다. 백담사=김철우 기자

한국불교의 대표적 수행법인 간화선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국제 간화선 센터' 건립이 추진된다. 조계종 기획실장 현교스님은 "간화선 수행은 불교만이 아닌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이며, 국제적인 문화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국제 간화선 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8월 20일 밝혔다. 국제 간화선 센터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간화선 수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중점을 두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건립지는 삼보사찰 가운데 한 곳이 될 가능성이 크며, 규모는 건평 5천평으로 계획하고 있다.

조계종은 센터 건립에 240억원 가량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정부에 예산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정부 예산이 확정될 경우 조계종은 센터 건립에 따른 세부 프로그램 마련 등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한명우 기자 백담사=김철우 기자

## 전국 비구니회관 개관

### 2천6백여평, 교육·포교·복지사업

7천여 비구니 스님의 숙원사업인 전국비구니회관이 마침내 개관했다. 전국비구니회는 8월 19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 전국비구니회 회장 광우스님, 조계종 원로 지관스님들 1500여명의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서울 수서구에 위치한 전국비구니회관에서 개관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광우스님은 이 자리에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비구니회관이) 어린이·청소년, 여성교회는 물론 수행,

교육, 포교, 복지가 함께 이뤄지는 실천도량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대지 1천2백40평, 건평 2천5백60평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800평 수용가능한 대법당(만불전)과 교육관, 불교문화실, 도서관 등을 갖추고 있는 전국 비구니회관은 비구니 스님과 여성 불자들에게 대한 교육, 포교, 복지사업은 물론 청소년, 장애인, 지역민 등을 위한 사회복지 및 문화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8월 19일 개관한 전국비구니회관전경.

한편, 이날 법회에서 비구니회관 건립에 기여한 공로로 한마음선원장 대행스님, 전국비구니회장 광우스님 등 40여명이 공로패 및 감사패를 받았다. **관련 인터뷰 3면** 한상희 기자 hansang@buddhapia.com

또 중앙승가대학 본각스님은 학술논문자료집 <비구니와 여성불교 (전6권)> 등을 출판, 비구니회장 감사패를 받았다. **관련 인터뷰 3면** 한상희 기자 hansang@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 신청 안내  
 수도권: (02)737-0090 부산: (051)632-0064 대구: (053)768-8008 광주: (062)375-9986 전북: (063)255-2274 대전: (042)489-9390 충북: (043)258-3282 강원: (033)643-5599 영주: (054)634-3429 경남: (055)353-1196 제천: (043)644-4366 경남 서부: (055)547-3469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불자라면 누구나 하나쯤은 갖고 있는 단주, 작은 단주에 전법의 원을 담아 '희망의 단주 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불교교육원(이사장 대성) 법우들이 화제다. 부산불교교육원이 희망의 단주 보내기 운동을 발원한 것은 지난 6월, 원주교도소 재소자불자회 회장이 보내온 한 통의 편지 때문이었다. 부산불교교육원이 교도소와

구치소에 보시하고 있는 소책자 '날마다 좋은 날'을 읽은 박 모 회장은 "출소자들은 범죄의 유혹 속에서도 단주를 보면서 마음을 다잡고 있다"며 "먼저 출소한 선배들의 사연을 적고 있었다. 단주가 불연(佛緣)의 고리를 놓치지 않게 만드는 길잡이가 된다는 사연을 접한 부산불교교육원 법우들은 곧바로 희망의 단주를 발송했다. 부산불교교육원은 희망의 단주 보내기 운동과 더불어 부처님 말씀이 담긴 소책자 '날마다 좋은 날' 보내기, 불서 보내기 운동 등을 꾸준히 펼칠 예정이다. 전국의 교도소와 구치소 수는 35곳. 법회를 보는 곳이 27곳, 한 곳의 평균 법회인원이 300명이라고 하니 부산불교교육원 법우들의 발원은 이제 막 봉오리를 맺은 셈이다. '희망의 단주 보내기'가 교도소 포교의 전기가 되도록 우리 모두 '희망'이 되어야 할 때다. 천미희(부산주재자)

**'희망의 단주 보내기' 운동**

이 폐품을 주고 막노동을 하면서 번 돈으로 후배들을 위해 단주를 사 보내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재소자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단주를 보내달라"는 내

보내기 위한 모금운동에 들어갔다. 8월 5일 부산교도소에 300개의 단주를 전달할 것을 시작으로 19일에는 편지를 보내온 원주교도소에 300개의 단주를 우편으로

**한국불교총본산 성역화 불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상량식**

21세기 새로운 불교를 열거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상량식"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수리 동참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불기 2547(2003년) 8월 29일 금요일 3시  
**장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신축현장  
**문의:** 02)737-3975 ~ 6  
**불사동참:** ARS 060-700-0482

한국불교총본산 성역화 불사 추진위원장 **법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한국불교총본산성역화 조감도